

# 화사한 벚꽃비 흩날리는 '정읍의 봄'

### 정읍벚꽃축제 30일 개막... 불꽃쇼·포토존 등 볼거리 풍성 자연 친화 정읍천변 5km 구간 1200그루 벚꽃터널 '환상적'

화려한 봄날의 서막을 올리는 정읍벚꽃축제가 이달 시작된다. 정읍시는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2019 정읍벚꽃축제'를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개최한다. 축제는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정읍천 벚꽃로를 중심으로

화사한 벚꽃이 축제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시는 올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축제기간 정주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1.2km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야간경관조명도 기존 초산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0.8km를 연지교에서 정동교

구간 2.8km로 연장한다. 또 봄밤을 밝힐 불꽃쇼와 로맨틱 포토존, 먹거리와 농·특산품판매부스,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제23회 정읍예술제와 자생화·자생차 페스티벌과도 연계해 상춘객들을 끌어 모으고 정읍의 대표 봄 이벤트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벚꽃축제의 주 무대인 정읍천(井邑川) 상동~연지동 5km 구간으로 1200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 구간은 벚꽃 특유의 화사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이 높고 포토존과 경관조명이 설치돼 봄나들이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처럼 전년보다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축제 일정을 앞당겼다"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야간 경관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갯벌 주민학교 개강** '고창갯벌 주민학교'가 유기상 군수와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갯벌센터에서 개강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고창갯벌 주민학교는 지주식 김, 바지락, 천일염, 새우, 풍천장어 등 고창의 대표적인 수산물의 청정 생산 기술, 산시기공, 유통, 마케팅 등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교육한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기업유치·국비확보 '사활'

### 유기상 군수, 정부청사·전북도 방문 협조 요청

고창군이 기업유치와 정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 등은 전북도청과 세종정부청사 등 상급기관을 방문, 우량기업 유치와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유 군수는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민안전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실국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직접 만나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토 22호선 시설개량사업과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 신설을 위한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계획, 전라북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군은 또 부서별 전북도청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군은 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4월까지 격주마다 전북도를 비롯한 세종시 현장에서 보고회와 전략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전주시,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기 총력

전주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여보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4억원을 투입해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꺼내 들었다. 올해 시는 정부 예산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입해 80대의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또 지

난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5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량)을 폐차(수출발소포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시는 1대당 차량 구매비의 일부인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과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이다. 시는 차량이 같으면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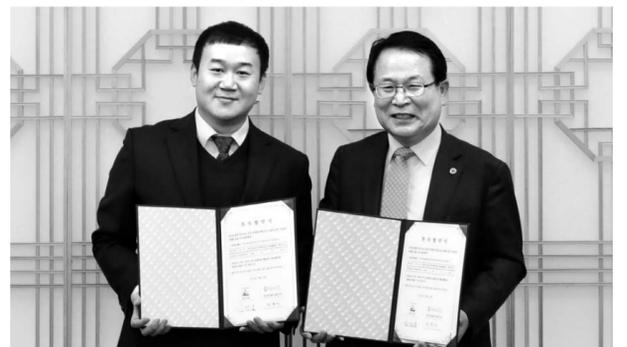


## 군산항-中 산둥성 스타오항 여객선 6월 운항

### 카페리선 '군산펄' 진수식

군산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스타오(石島)항을 오가는 새 여객선이 6월 말부터 운항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스타오간 여객선을 주 6회 운영하는 석도국제해리가 지난 14일 중국 한 조선소에서 새 카페리선 군산펄(GUNSAN PEARL·사진)호 진수식을 했다. 2만t급 군산펄호는 의장 작업, 내부 정

리, 시험운항을 거쳐 6월에 인도돼 현 스타오호를 대체한다. 군산펄호는 길이 169.9m, 폭 26.2m에 승객 1천200명, 컨테이너 335TEU를 적재할 수 있다. 김상겸 석도국제해리 대표는 "6월부터 군산펄호를 운항하면 지난해 말 투입한 자매여객선 뉴씨다오펄호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지난 21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유)네오콜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협약식에서 정현철(오른쪽) 시장과 한뎀리 네오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 익산지역 강소기업 투자처 급부상

### 제3산단 4960㎡ 부지 (유)네오콜 20억 투자 협약

익산지역이 강소기업의 투자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유)네오콜과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협약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유)네오콜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4960㎡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업체가 정상가동 되면 1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생기업인 네오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균소독과 탈취가 필요한 생활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이산화염소수

(ClO<sub>2</sub>)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산화염소수는 무방부제, 무독성, 친환경 성분으로 향으로 냄새를 덮는 일반 방향 탈취제와 달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 각종 유해세균을 99.9% 제거하는 환경 친화적인 탈취제로 알려져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조기 정착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